濟州島地方의 地名語彙攷(Ⅱ)

金 洪 植*

目 次

Ⅰ. 序
Ⅱ. 本 論
1. '기'
2. '다리'
3. '아리'
Ⅲ. 結 論

Ⅰ. 序

地名이란 本是 地上의 位置 또는 地域을 表示하는 機能을 가지는 것이므로, 어떠한 地名도 無意味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그 發生에 있어서 場所 또는 그 地域을 表象하는 自然이나 人文的 事象 등에 根據해서 命名되는 것이 一般的이다.

이와 같이 地名은 自然地理的, 文化史的 意義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그 地域에 살았던 先人들의 生活相의 자취를 남긴 社會的 所産이요, 또한 時間이 흐르고 歷史가 쌓임에 따라 累積더어온 歷史的 所産이다. 그러므로 地名은 人類의 文化發達의 자취를 잘 傳하여 주는 貴重한 文化遺産인 것이다. 即 地名에는 命名 當時의 自然的 및 人文的 環境을 示唆하여 주는 化石과도 같은 것이어서, 地名은 지난날의 社會史·文化史 또는 言語史를 硏究하는 貴重한 學問 硏究의 資料가 된다.

特히 地名과 言語와는 大端히 密接한 關係에 있다고 하겠으니, 그것은 곧 言語로 命名되는 까닭이다. 特히 어느 地方에 있어서 方言과 地名의 兩者間에는 相互間 매우 비슷한 性質을 지니고 있는 反面 獨自的인 個性도 지니고 있다.

地名中에는 그 名稱이 變하는 것도 있기는 하나 그것은 全體로 볼 때 極히 少數이며, 오히려 原型으로 오늘날까지 傳해지는 것이 許多하다. 即 地名은 一般 語辭보다 保守的이고 固着性이

* 人文大學 敎授

强하여 굳게 그 地域에 定着하는 性質이 있다. 그러므로 地名에는 民族 固有語의 底層이 比較的 外來語의 侵蝕을 받음이 없이 保存되어 있으리라는 點도 또한 期待되는 바 있다.

이와 같은 地名은 文獻 以前時代의 言語를 研究하는 데 貴重한 資料로서 國語의 通時的研究에 있어서 地名의 活用은 大端히 重要한 位置를 차지한다고 본다.

濟州島(以下 '本島'라 稱함) 地方은 陸地部 諸 地域에 比해서 比較的 豐富하고 特異한 地名이 保有되어 있다고 생각되며, 어느 意味에서는 地名의 寶庫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것은 本島가 지녀온 文化的 自然地理的 環境의 特殊性에 緣由함이라고 할 것이다.

本是 地名은 人類生活의 시작과 함께 지어졌을 것이니, 그것은 文字以前時代부터며, 純粹한 固有語로서 命名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後世에 漢字가 傳來, 使用하게 됨에 따라 固有語로서의 地名이 漸次 漢字名으로 代替되어 나갔으니, 저 三國史記 地理志의 地名變更의 事例 等에서 보아 잘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地名에서 보면 많은 固有語로서의 地名이 漢字名에 의해 희생되어 消滅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本島地名은 根源的으로 그 大部分이 固有語로 命名되어 呼稱되어 왔으나,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漢字名 地名이 漸次 固有地名勢를 壓倒하기에 이르러, 將次는 傳來의 固有地名은 完全히 消滅될 時期가 到來할 것임은 必至의 事實로 보아진다. 그것은 國家行政的 必要에서 모든 公簿上의 記錄과 公式 名稱을 漢字地名으로 變更 代替 使用하여 왔던 關係로 漢字地名은 國家 公式地名이란 優位性으로 固有語地名을 壓倒하기에 이르고, 또 새로운 世代의 呼吸과 함께 代替 傳播되고 있는 反面, 固有語로서의 地名은 俗名으로 轉落, 傳播에 優位性을 빼앗기고, 다만 個個鄕土人들만의 愛着을 받으며, 한갖 그 命脈을 維持해 오고 있는 實狀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實態는 現地調査를 나갔을 때도 實感하는 일인데, 地名의 물음에 대하여 大槪 젊은 世代나 所謂 識者然하는 層에서는 漢字名으로 應答 附會하려 드는 境遇가 許多하다. 그러나 地名의 解釋에 있어서 漢字의 使用 以前에 된 固有語地名을 漢字의 字義와 關聯지어 說明하려고 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漢字語 地名은 單純히 漢字 借記에 不過한 境遇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漢字地名勢는 앞으로 漸漸 盛하여 갈 것이며, 相對的으로 固有語地名은 漸次 消滅하게 될 運命에 處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라져 가는 固有語地名을 調査 發掘 採集하여 記錄하여 두는 일이 時急하다고 할 것이다.

筆者는 이미 本島의 地名接尾辭中 그 一部에 대하여 鄙見을 든 바 있으나[1] 本稿 亦是 그 繼續的인 作業의 一環으로, 特히 國語史的인 觀點에서 古記錄과의 脈絡에 可能性을 內包하는 몇 地名 語彙에 대하여 考察, 그 語源과 起源 및 歷史的 背景 등을 찾아 보고, 또 隣近 同系語와도 그 異同을 比較하여 이들 地名上에서 본 本島方言(以下 '方言'이라 稱함)의 特徵 等에 대해서도 규시하여 보려 한다.

1) 拙稿, "濟州島地方의 地名語彙攷(Ⅰ)", 「論文集」 第20輯, 濟州大學校, 1985.

Ⅱ. 本　　論

1. '기'

地名語彙의 結合形態를 接頭辭, 核語, 接尾辭의 三形態로 區分하여 볼 수 있는데, 本島의 地名語彙 '기'는 地名接尾辭에 該當되는 것으로서, 本島 地名에는 이 '~기'를 接尾하는 地名 語例가 全島 一圓에 比較的 豐富하게 分布되어 있다고 본다. 다음에 그 地名 語例를 들어 본다.

옥기　(南元邑 衣貴里)
서옥기　(南元邑 南元里)
허디귀　(南元邑 水岳里)
지귀　(南元邑 地歸島)
서귀　(西歸浦)
고송모기　(安德面 倉川里)
돌루기　(安德面 上倉里)
가신기　(安德面 柑山里)
둥둘래기　(安德面 上倉里)
수마기　(大靜邑 武陵里)
돗기　(大靜邑 保城里)
산내기　(翰京面 造水里)
가원모기　(翰京面 造水里)
거우기　(翰京面 造水里)
냇기　(表善面 下川里)
차귀　(翰京面 高山里)
법기　(翰京面 龍水里)
돌개기　(翰林邑 歸德里)
곽기　(涯月邑 郭支里)
거문데기　(涯月邑 今德里)
불용기　(涯月邑 納邑里)
정통모기　(涯月邑 納邑里)
강남모기　(涯月邑 納邑里)
돌가기　(涯月邑 納邑里)
한데기　(濟州市 龍潭洞)
들렁기　(濟州市 梧登里)
바매기　(朝天邑　　)
넙대기　(舊左邑 演坪里)
봉대기　(舊左邑 松堂里)

올르래기 (舊左邑 女川洞)
백기 (城山邑 古城里)
건내기 (城山邑 古城里)
웃내기 (城山邑 新豊里)
오종기 (城山邑)
빌레기 (城山邑 蘭山里)
냇기 (表善面 下川里)

以上 擧例한 바와 같이 이 '~기' 接尾 地名은 本島 全域에 걸쳐 고루 分布되어 있으며, 數的으로도 比較的 豊富한 편이다.

本島 地名에서 이 '~기'는 單純한 地名接尾辭로 볼 것이며, 이 '~기' 接 地名의 分布上의 特徵은 特別한 것은 찾아 볼 수 없으나 大體的으로 中山間 地帶에 主로 分布되어 있다고 본다. 또 이 '~기'型 地名을 보면 大體로 現在의 「洞·里·村·野原」 등에 對應함을 알 수 있을 뿐 方言에서도 이 '기' 語辭의 語義에 대해서는 分明치 않다.

다음에 이들 '~기' 地名 語辭의 語義 乃至 語源 等에 대하여 古文獻의 記錄과 關聯하여 살펴보면, 이 '~기'는 古代地名에서 '城'과 對應 表記된 例를 볼 수 있고, 또 日本에서 城을 '-ki'라 하여, 學界에 이 '-ki'의 本質에 대한 疑問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三國史記」 地理志에서 「只·己·支·岐」 등으로 表記된 '-ki' 表記의 例가 50餘個 있는데, 이中 '城'과 對應된 例는 아래의 4個뿐이다.[2)]

闕城郡本闕支郡 (三國史記, 地理1)
潔城郡本百濟結己郡 (三國史記, 地理3)
悅城縣本百濟悅己縣 (三國史記, 地理3)
儒城縣本百濟奴斯只縣 (三國史記, 地理3)

以上은 主로 百濟의 故土의 地名에 發見되고 있는 點으로 보아 百濟語에서는 城을 意味하는 語辭로 'ki(己·只)'가 있었음을 推定할 수 있겠으며, 이 語辭는 또 新羅語나 高句麗語에도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서, 古代日本의 ki(城·柵)는 百濟語 單語의 借用이라고 생각된다.[3)]

이 以外에도 「三國史記」 地理志에서 「己·只·岐」 등으로 表記된 地名例가 許多하나, '城'과 對應하는 表記例는 위에서 보인 程度이고 그 大部分은 新羅 景德王 16年 地名 改稱時에 '城'字로 飜字되어 있지 않다.

栗原縣本百濟支縣 (三國史記, 地理1)
金溝縣本百濟仇知只山縣 (三國史記, 地理3)
唐山縣本仇知只山 (三國史記, 地理4)

2) 李炳銑, 「韓國古代國名地名研究, 螢雪出版社, 1982, p.167.
3) 李基文, 「國語史槪說」, 民衆書館, 1974, p.38.

監海縣本百濟古祿只縣 (三國史記, 地理4)
沃野縣本百濟屈所力只縣 (三國史記, 地理4)
靑音縣本百濟伐音支縣 (三國史記, 地理3)
雲梯縣本百濟只伐只縣 (三國史記, 地理3)

以上 든 地名들은 모두 城邑 또는 村邑의 地名들인데, 이 地名에 添加된 「己·支·只·岐」는 '城'의 뜻이 아닌 單純한 地名 接尾辭에 不過한 것으로 본다. 도 '~기'는 山川의 이름에도 添加됨을 보아서 이를 '城'의 뜻으로만 볼 수 없다.

以上에서 볼 때 「三國史記」 地理志에 所載된 地名 語彙 「己·只·岐」의 語義는 百濟語에서 그 一部가 '城'으로 對應됨을 알 수 있겠으며, 따라서 百濟語에는 '城'을 뜻하는 語辭에 '기'가 있었음을 推定할 수 있겠다. 그런데 「己·只·岐」系 地名의 大部分이 '城'의 뜻이 아닌 村邑, 村落, 山川 等을 나타내는 다른 字로 飜字되어 있어 「己·只·岐」를 全的으로 '城'의 意味만으로 보는 데는 問題가 있다.

또한 現在 本島 地名例 및 陸地部 諸 地名例에서 볼 때도 '기'가 '城'과 對應되는 地名例를 별로 찾아 볼 수가 없으니, 이 「己·只·岐」의 語義와 本質이 매우 疑問視된다.

이에 대해서 李敎柱 敎授는 原來 「只·己」는 '城'의 뜻을 가진 語辭로서 後世에 이르러 '城'의 主意味가 衰殘해 지고, 한개의 地名接尾辭로 發展해 버린 것으로 보았으며,[4] 또 李炳銑 敎授는 原來 이 'ki'는 '城'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地名에 붙는 接尾辭인데, 이 'ki'가 붙는 地名에 城이 잇으므로써 이를 城으로 알게 되었을 뿐이라고 하였다.[5]

위 兩氏의 所論에서 보면 地名語辭 'ki'가 當初에는 城의 뜻에 쓰이던 것이 後에 地名接尾辭로 變하여진 것이냐, 또 이와 반대로 처음에는 地名接尾辭로 出發하였으나 나중에는 城의 뜻으로도 使用하게 되었느냐의 先後 關係 問題일 뿐 'ki' 地名語辭가 '城'의 뜻을 갖는 語辭라 함에는 一致된 見解로 볼 수 있겠다.

本島地名의 實態에서 볼 때 '~기'가 '城'이나 '郡, 縣'과 關聯된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겠으며, 또한 現在 本島 方言 現象中에서도 城의 뜻으로의 '기'語形은 全然 찾아볼 수 없다.

다만 本島에서는 城을 意味하는 語辭로 '잣'이란 語辭가 殘存하여 있기는하나 거의 消滅 段階에 있어 單獨으로는 實現되는 일이 거의 없고, 合成語로서 若干의 語彙에 남겨져 있으나 談話에서도 그리 흔하게 實現되지는 않는다.

우잣 : (울타리의 안)
상잣, 하잣 : (옛날에 漢拏山을 中心으로 해서 全周圍에 돌로 담을 쌓았는데 윗쪽 잣을 상(上)잣, 아랫쪽 잣을 하(下)잣아리고 불렀음)
잣담 : (잔돌로 넓다랗게 마주 덧붙여 쌓아 올린 담)

4) "全南地方의 地名에 關한 考察", 「국어국문학」, 29호, 국어국문학회 1965, p.104.
5) 李炳銑, "古代日本地名硏究", 「語文敎育論集」 제7집, 釜山大師大國語敎育科, 1983, p.24.

以上 語例에서의 '잣'은 15世紀 國語의 '잣'(城)과 對應되는 것으로, 本島方言에는 아직도 15世紀 言語의 古形이 部分的으로나마 殘存하여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잣뫼 : 城山 (龍歌1 : 52)
城은 자시라 (月釋1 : 6)
잣셩 : 城 (訓蒙中. 8)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本島 方言에서는 '城'을 뜻하는 語辭로 '잣' 語形은 찾아볼 수 있으나, '기' 語形은 單純한 地名接尾辭로서 「洞, 里, 村, 野原」 등에 對應될 뿐 城의 뜻과는 無關하다고 본다.

그러나 앞에 擧例한 바와 같이 三國史記 地理志의 記錄 等으로 미루어 볼 때 '城'에 對應되는 語辭로 'ki'가 存在하였던 것만은 事實일 것이니 이것을 再構(reconstruction)할 수 있는 길은 現在 本島 地名語를 爲始해서 陸地部 諸 地名에서 찾아볼 수 있는 地名語彙가 所重한 資料라고 생각된다.

勿論 現代地名 中에서는 '기'가 城이나 郡, 縣과 關聯되는 것이 적고, 單純한 地名接尾辭로서 「里, 洞, 村, 野原」 등의 뜻과 對應되는 面이 많다고 하드라도 이것은 相當히 後代의 發達로 보아지며, 原來 이 '기'는 '城'에 對應되는 語辭이던 것이 地名語彙로 轉用케 됨에 따라 漸次 虛辭化되어 나중에는 單純한 地名接尾辭로 固着되어 버린 것이 아닌가 想定된다.

그리고 이 '기' 語辭는 主로 百濟系語로 高句麗系語에는 勿論, 新羅語에서도 發見할 수 없는 特異한 單語라고 보아지는데, 中世國語에서는 國字로 表記된 '기' 地名例를 찾아볼 수 있다.

在府東 三十七里許大 厚叱只흣기 (龍歌7 : 25)

여기서 '흣기'는 '흣+기'로 그 形態를 分析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니 이 '기'는 地名接尾辭가 아닌가 생각되며, 이것은 本島의 地名接尾辭 '기'와 對應되는 것으로 推定된다.

또 本島 地名語彙 '기'는 前記한 古文獻(三國史記)의 地名語와도 脈絡이 닿는 것으로 推定되니 이 '기'는 그 起源이 오랜 歷史性을 갖는 語辭로 볼 수 있겠다.

또 百濟語인 이 '기' 語辭가 本島 地名에 殘存하여 있음도 決코 偶然한 것은 아니라고 보며, 거기에는 過去 百濟와 本島와의 歷史的 背景과 地理的 條件 등으로 미루어 보아 首肯이 갈 것이다.

本島地名에는 또 '~지'를 接尾하는 地名語例가 散見되는데, 이것은 前述한 '~기' 地名接尾辭와 어떠한 關聯이 있는 것인지 살펴 보기로 한다. 다음에 그 地名例를 提示한다.

산지 (濟州市 健入洞)
맨둔지 (濟州市 道連洞)
굴치 (濟州市 我羅洞)

여란지 (濟州市 吾羅洞)
곽지 (涯月邑 郭支里)
돗마지 (涯月邑 郭支里)
섭지 (翰林邑 狹才里)
눈돗지 (翰京面 楮旨里)
암지 (大靜邑 加波島)
월낭지 (城山邑 蘭山里)
한와지 (舊左邑 演坪里)
목양지 (舊左邑 演坪里)
뒷터지 (舊左邑 杏源里)

이 '~지'接尾 地名은 이外에도 더 있을 것으로 推測되나 우선 調査된 몇 語例만을 들어 보았다.

그러면 이 '~지'는 前述한 '~기'와는 어떤 關聯은 없는지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한다.

三國史記 地理志에서 보면 地名接尾辭로 「己·只·支」 등의 語例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은 모두 '城'을 對譯한 異借字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問題가 되는 것은 「支」의 讀音이다. 或은 이것을 「己·只」와 같은 「기」로 推定할 수도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 李敎柱 敎授는 이 「支」를 「지」로 보았다.[6]

古代에 있어서는 '기·지'音은 相應하는 例가 많았다고 본다.

支潯縣 本只三村 (三國史記, 地理4)

여기서 '支' '只'는 同音으로 보는 것 보다는 오히려 '기·지'의 共存으로 보는 것이 妥當하지 않을까 한다. 이렇게 본다면 城을 意味하는 말에 이미 自立形態素로서의 'ki'와 그것의 異形態 'ci'가 當時에도 共存하였으리라는 推測이 可能할 것이다.

그리고 이 '기'와 '지'型이 共存 關係에 있으리라는 推定은 本島地名 語例에서 볼 때도 首肯된다.

濟州市에 西쪽으로 約 27km 떨어진 곳에 '郭支里'라는 自然部落이 있는데, 行政區域上으로는 北濟州郡 涯月邑에 속한다. 이 部落 名稱은 前記 地名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現在로서는 '곽지(郭支)'라고 呼稱하는데, 그렇게 불리워진 것은 約 100年 밖에 되지 않으며, 옛날에는 '곽기(郭岐)'라 呼稱하였다고 傳하여진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비록 時代的으로 差異는 있다고 하겠으나 「곽지, 곽기」 即 「~기, ~지」는 共存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2. '다리'

6) 李敎柱(1965), cit, p.104.

本島의 地名에는 또 '다리'類의 語辭를 比較的 많이 찾아 볼 수 있는 데, 이 '다리'는 地名接尾辭로 核語에 接尾되는 것이 一般的이다. 또 그 形態도 '다리'型이 絶對 多數이나 그 變形으로 생각되는 것도 若干 있다.

다음에 그 地名 語例를 提示하여 본다.

고분다리 (朝天邑 大屹里)
종다리 (舊左邑 終達里)
칼다리 (南元邑 新豐里)
고린다리 (翰京面 武陵里)
안충다리 (舊左邑 下道里)
논다리 (濟州市 蓮洞)
비중다리 (舊左邑 濱坪里)
색다리 (西歸浦市 中文洞 橋達里)
잔다리 (安德面 東廣里)
이다리 (大靜邑 上모里)
불근다리 (大靜邑 日果里)
용산다리 (翰京面 造水里)
한다리 (翰林邑 歸德里)
넌다리 (濟州市 吾羅洞)
코친다리 (安德面 上倉里)
모진다리 (舊左邑 下道里)
난다리 (西歸浦市 中文洞 下貌里)
ᄃᆞ리 (朝天邑 橋來里)
인다라 (濟州市 我羅洞)
간드락 (濟州市 看月洞)
다리물 (大靜邑 九億里)
다라쿳 (濟州市 月坪洞)
다랑굿 (濟州市 老衡洞)

以上 擧例한 바는 主로 '~다리'가 接尾하는 村落名들이다. 위 地名 語例 中에서 'ᄃᆞ리, 다라, 드락, 다랑' 등의 異形態가 若干 있으나 이것은 '다리'의 한 變形으로 볼 것이다.

이 '다리' 語辭는 方言에서는 自立形式(free form)으로 使用되지 않으며, 따라서 그 語義도 不分明하다.

위 地名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리'는 「里, 洞, 村」에 對應되는 單純한 地名接尾辭일 뿐이나, 다만 위 地名例 中에서 「ᄃᆞ리, 다리물, 다랑굿, 다라쿳」만은 例外的이다.

이 '다리'型 地名이 示顯하는 地名의 地形的 特徵에 대해서는 特異한 것은 찾아볼 수 없으나, 大體的으로 港浦口 등의 海岸에 沿한 地名 보다는 中山間 地帶의 地名에 많이 使用되고 있다고 본다.

그러면 이 地名接尾辭 '~다리' 語辭는 어데서 由來된 것이며, 그 語義 및 語源 등에 대하여

文獻 記錄과 關聯 考察하여 보기로 한다.

15世紀 文獻인 龍飛御天歌에 보면

碧瀾渡 俗稱白達힌다리 (龍歌.2)

여기서 '힌다리'는 當時의 우리 固有語 地名이 分明하며, 「白達」은 「힌다리」의 漢字 借記일 것이다.

힌다리(白達)는 松京 宣義門 西쪽 30里, 즉 白川 東쪽의 臨津江 下流의 나루로 碧瀾渡의 俗名이라고 하니,[7] 이것은 이 15世紀 '힌다리'의 '다리'는 本島 地名語辭 '다리'와 對應되는 것으로 보겠으나, 다만 이와 같은 地名例를 달리 더 찾아 볼 수 없음이 아쉽다.

또 '白達'에서 '達'은 '힌다리'의 '다리'와 서로 對應되는데 이 '達'은 高句麗系 地名接尾辭로서 高句麗 地名에서 '山'이나 '高'에 對應 表記되었음을 볼 수 있다.

土山縣本高句麗息達 (三國史記, 地理2)
蘭山縣本高句麗昔達縣 (三國史記, 地理2)
靑山縣本高句麗加支達縣 (三國史記, 地理2)
梨山縣本加尸達忽 (三國史記, 地理2)
高城郡本高句麗達忽 (三國史記, 地理2)
高烽縣本高句麗達乙省縣 (三國史記, 地理2)

여기서 '達'은 '邑里'를 뜻하는 地名接尾辭로 보겠으며, 그 뜻은 '山·高' 등에 對應된다고 하겠다.

高句麗의 地名接尾辭인 이 '達'은 新羅時代에 와서는 '山'으로 代替된 것이 많으며, 이렇게 해서 '山'을 뜻하던 '達' 語彙는 後世에 廢語가 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達'은 오늘날 大體로 固有語 'tar'의 表記로 보고 있으며, 前述한 15世紀 地名語彙 '白達'의 '達'은 '힌다리'의 '다리'와 對應되는데, 이는 達(tar)에 接尾辭 '~이'의 接尾에 의한 語形 伸張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면 本島의 地名語彙 '다리'도 叙上의 文獻의 記錄과 어떤 關聯이 있는 것이 아닐까 推測된다.

우선 前述한 15世紀 地名語 「힌다리(白達)」의 '~다리'는 바로 本島의 地名 語辭 '다리'와 對應되는 것으로 想定되며, 따라서 이 '다리'는 '달'에 接尾辭 '~이'가 添加되어 派生된 語形으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달'은 根源的으로 '山'을 뜻하는 語辭로 高句麗系 地名語 '達'과 對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7) 崔範勳, "「龍飛御天歌」의 正音表記 固有名詞硏究(Ⅱ)", 「韓國語文學」 第21輯, 韓國言語文學會, 1982, P. 434.

그런데 本島 方言에서 '山'을 뜻하는 語辭로 '달'은 찾아 볼 수 없다. 그래서 本島에서는 아마 '山'을 뜻하는 말로 '달' 語辭가 일찌기 存在하였었으나 그後 어느 時期에 가서 消滅되어 버리고, 다만 그 化石으로 남겨져 오늘날까지 傳하여진 것이 地名語彙 '다리'가 아닐까 推測된다.

또 여기에 臆測을 加한다면 本島 方言에서 '山嶺'의 뜻과 關聯된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톨'이라는 語辭가 있는데, 이것이 저 '달(山)'과 對應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方言에서 '톨'의 뜻은 普通 山 乃至는 山속의 수풀을 뜻하는 것이나, 여기에는 '山'의 뜻도 多分히 內包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 그런데 이 '톨'이라는 語彙는 오늘날 方言에서 共時態로 거의 實現되지 않는 消滅段階에 있는 語彙이다.

또 本島에는 無人島로 '관탈'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여기서의 '탈'은 '山'과 對應되는 것으로도 推測되나 이와 같은 地名例를 달리 더 찾아볼 수 없으므로 速斷할 수는 없다.

그리고 또 이 '톨·탈'은 有氣音이니 '달(達)'과 形態上 對應關係로 보기가 困難하다. 그러나 本島方言의 音韻現象中에는 一部 語彙에 있어서 標準語의 平音과 硬音이 方言에서는 有氣音으로 對應되는 音韻現象이 있다.

〈標準語〉	〈方言〉
딸기(苺)	탈
때 (垢)	태
떼 (群)	태
부채(扇)	푼채
번개(電)	펀깨
보(보자기)	포
보(梁)	포
조상(祖上)	초상
자루(袋)	찰리
당(唐)	탕국(唐國)

이상 方言에서의 對應關係를 例示하여 보았다. 이 外에도 더 많은 例가 있겠으나 이만 든다.

여기서 볼 때 '달'과 '톨' 即 平音과 有氣音의 對應關係의 成立 可能性도 全然 그 蓋然性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진다.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高句麗系 地名에서 '山'을 '達'字로 對應 表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는데, 이 '達'의 分布는 百濟 地域의 地名에서는 單 一例도 찾아볼 수 없는 高句麗的인 存在이기도 하다.[8]

百濟地名에서는 「山」과 對應 表記한 것으로 「等也·等良·珍河」 등의 地名語를 찾아볼 수 있다.

8) 都守熙, 「百濟語研究」, 亞細亞文化史, 1977, p.140.

黃山郡本百濟黃等也山郡 (三曰史記, 地理3)
高山縣本百濟高山縣(一云難等良) (輿覽)
鎭安縣本百濟難珍阿縣(一云月良) (輿覽)

여기서 「等地, 等良, 珍河」 들은 '山'을 뜻하는 'torɔ, tara, tari'의 借字 表記일 것이다.

그리고 위 百濟 地名例에서 「難等良」는 '난다라, 난드르'의 表記로 볼 수 있겠는데, 이는 本島 地名의 '는다리, 난다리, 넌다리' 등의 地名例와 對應關係를 聯想케 하는 것이라고 본다. 「難等良」의 「難」은 「高」의 뜻이며,[9] 「等良」는 'tɔrɔ, tara, tari'의 表記이니, 「難等良」는 높은산(高山)을 뜻하는 地名語彙로 볼 수 있겠는데, 本島 地名語의 '난다리'도 當初에 그런 뜻에서 命名된 것은 아닌지? 傍證 資料가 없는 現在로서는 分明히 알 길이 없다.

그리고 또 이 「다리, 다라」型 地名은 濟州島의 古名稱인 「耽羅」와도 어떠한 關聯이 있는 것이 아닐까 推測을 하여 본다. 濟州島의 古名稱에는 「耽羅, 耽牟羅, 屯羅, 度羅」 등이 있는데, 이의 解讀 및 그 語義에 대해서는 關心있는 學者들에 依해서 充分히 論議되어 온 바라고 생각 된다.

그런데 일찌기 日本人들은 耽羅人을 「ドラ(dora)」人이라[10] 呼稱하였다고하니 이것도 全然 根據없는 말은 아닐 것이며, 「耽羅」의 解讀에도 參考가 될 것이다.

또 日本人들은 巨濟島를 「クダラ(kudara)」島라고 呼稱하였으니,[11] 여기서 「濟」字는 「ダラ(dara)」의 借記로 볼 수 있겠다. 「耽羅」는 高麗 忠烈王 二十二年에 「濟州」로 改名하였는데, 이 「濟州」의 「濟」字도 「다라」의 一借記일 것이다. 「州」은 郡, 邑, 府 등과 같이 어느 地方에나 붙이는 普通名詞로 볼 것이니, 全州, 光州, 羅州……等과 같이 濟州에서 固有名詞는 「濟」字 하나 뿐임을 알 수가 있겠다. 그러므로 本島의 古名稱인 「耽羅」나 現 名稱인 「濟州」는 아마 다 같이 固有語 名稱인 「다라」의 漢字 借記가 아닐까 한다.

이렇게 해서 本島를 呼稱하던 「다라(耽羅, 度羅)」의 固有語 名稱이 普遍化되어 드디어는 一般地名으로 擴大 使用하게 된 것이 本島地名의 「다리, 다라」가 아닌가 想定된다.

또 日本의 地名에도 「多羅, 多良」가 있다고 하며,[12] 滿洲語와 蒙古語등에서 「野原, 田, 耕地」를 뜻하는 말로 「tala」가 있다고하니, 이것도 本島 地名 「다리, 다라」와 어떤 關聯性이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는 比較言語學的 觀點에서 보아 매우 示唆的이며, 本島 地名語彙 「다리, 다라」의 起源도 原來 Altai系語에 있을 蓋然性도 全然 排除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아리'

本島 地名에는 또 '아리, 어리, 우리, 아라, 오라' 등의 地名語彙를 찾아볼 수 있으니, 다음

9) 李炳銑, "古代南北間方言의 異同에 對하여", 「국어국문학」 제90호, 국어국문학회, 1983, p. 53.
10) 信島利一郎, 「日本地名學研究」, 日本地名研究所, p. 776.
11) Ibid, p. 776.
12) 鏡味完二, 「日本の地名」 角川書店, 1965, p. 61.

에 그 地名例를 들어 본다.

물영아리 (南元邑 水望里)
용아리오름 (安德面 上川里)
영아리오름 (安德面 上川里)
영아리 (表善面 表善里)
어리목 (濟州市)
어린비 (涯月邑 於音里)
무우리 (南元邑 水望里)
물장우리 (濟州市 奉蓋洞)
아라리 (濟州市 我羅洞)
아라위 (濟州市 我羅洞)
아라도 (濟州市 外都洞)
오라위 (濟州市 吾羅洞)

以上 地名 語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地名語는 '아리, 아라, 어리, 우리, 오라' 등 여러 形態가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들은 共히 vrv型으로, 다만 母音差에 依한 異形態라고 생각된다. 便宜上 여기서는 '아라'型을 그 代表型으로 하여 둔다.

이 '아리'系語 地名의 分布 狀態는 極히 僅少한 편으로 海岸地帶보다는 大體로 中山村 地帶에 分布되어 있는 것으로 보며, 이 地名은 大槪 '村落, 里, 洞' 名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또한 山嶺名에서도 볼 수 있으니 위 地名例에서 '영아리오름, 어리목, 물장우리' 등이다.

그러면 이 地名語彙 '아리'의 語義 乃至 語源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우선 文獻 記錄에서 '아리'類의 地名과 關聯된다고 생각 되는 古地名을 찾아서 들어 본다.

溫祚都河尉禮城 (三國史記, 濟紀11)
遼東城州本烏列忽 (三國史記, 地理4)
又取大西部里河 (三國史記, 濟紀3)
關也山 (三國史記, 地理4)
安羅山 (三國史記, 高句麗 本記9)
野老縣本百濟阿老谷縣 (三國史記, 地理3)
王威赫怒 渡阿利水 (廣開土王碑)
於利城 奧利城 也利城(廣開土王碑)
阿利那禮河 (日本書紀)
吾里洞(平安·朔州) (大東輿地圖)
於路峴(江原·原州) (大東輿地圖)
梧里浦(黃海·鳳山) (大東輿地圖)
於郎山(平安·鐵山) (大東輿地圖)
吾老村(平安·渭原) (大東輿地圖)
於里山(忠淸·永同) (大東輿地圖)

鴨綠院(全羅·谷城) (大東輿地圖)

以上 擧例한 文獻 記錄에서의 地名은 그 音이 大槪 '아리·어리·오리·우리' 등으로 볼 것이며, 이것은 本島의 地名語彙의 '아리'類와 對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 地名은 古代韓國地名에서도 全域에 걸쳐서 無數히 散在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겠다.

그러면 叙上의 '아리' 地名語彙의 語義에 대해 알아 본다.

金思燁博士는 이 '아리'地名語彙의 原形을 '올'로 보았으며,이것은 그 原音은 '볼'로보았다.[13] 그래서 이 '볼'은 光明의 義로서 그 語音은 '볼>볼'>올'과 같이 音轉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 李炳銑博士는 이 '아리·아라'의 語義를 '大' 또는 '主'의 뜻으로 보았다.[14]

또 金俊榮教授는 古地名 中의 闕川, 阿尸村, 阿良村, 北阿良, 官阿良 등의 地名語를 '아래'의 뜻으로 보았다.[15]

또 이 地名語彙 '아리, 아라'는 '美'의 뜻으로도 解釋하여 볼 수 있다. 그것은 오늘날 國語에서도 '美'의 뜻으로 '아름답다, 아리땁다'란 語가 있으니, 이것은 바로 '아리, 아라'와 對應되는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우리 民族의 代表的 民謠인 '아리랑'의 '아리'나 民謠와 歌謠의 歌詞에 흔히 나오는 '아라리, 아리아리, 아리스리'의 '아라, 아리'도 元來 '美'의 뜻을 가진 語彙라고 想定된다.

생각컨데 이 地名語彙 '아리, 아라'는 元來 '美'의 뜻을 갖는 自立形態素였던 것이나, 漸次 그 意味가 傷失되면서 廢語가 되어 버렸지마는 오늘날 그 化石化되어 남겨진 것이 地名語彙 '아리, 아라'가 아닌가 推測된다.

그래서 이 '아리'語辭는 自立形態素로서의 機能이 傷失되면서 漸次 自立性을 傷失하게 되고, 依存形式으로 接辭化함으로써 오늘날 接尾辭로 남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現代 國語에서 그 例를 들어 보면 '항아리, 종아리, 동아리, 아가리(악아리), 주둥아리', 등에서 '~아리'는 依存形式인 接尾辭라고 할 것이다.

方言에서도 이 '~아리' 接尾辭는 찾아 볼 수 있으니, 이 接尾辭가 接尾하여 方言化된 語例를 몇개 들어 본다.

〈方言〉	〈標準語〉
턱아리	턱
상아리	모양
창아리	마음
통아리	마음보
차추아리	수다스러운 사람

13) 金思燁, 「古代朝鮮語と日本語」, 六興出版社, 1981, p. 351.

14) 李炳銑(1983), op. cit, p.13.

15) 金俊榮, "韓國 小地名 後部에 대한 語義上 考察", 「韓國言語文學」 第10輯, 韓國言語文學會, 1973, p. 303.

方言에서 이 '~아리' 接尾辭가 接尾된 語彙는 大槪 下待 乃至 輕蔑하는 뜻이 附加된 卑語가 된다고 본다.

또 日本語에서도 古代語에 '美'의 뜻을 가진 'ara, ari'가 있었으나, 消滅되고 現在는 地名, 山川名, 人名 등에서만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荒戶[ara-to] (福岡市)
有田[ari-ta] (佐賀縣西松浦郡)
荒田[ara-ta] (茨城縣行方郡)
嵐山[arasi-yama] (京都市)
有賀[ari-ga] (姓氏名)
有馬[ari-ma] (姓氏名)
荒木[ara-ki] (姓氏名)

또 蒙古語에서도 '美'의 뜻을 가진 말로 'aran, arun, arigun'이 있다고 하니 이 地名語彙 '아리, 아라'는 比較言語學的 觀點에서도 매우 示唆的이라 하겠다.

다음에는 이 地名語彙 '아리, 아라'의 語義를 '山'의 뜻으로도 解釋하여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앞에 擧例한 本島 地名語彙 '아리' 中에서는 '山·岳'과 對應된다고 보아지는 것도 있으니 '물영아리'를 漢字로 '水靈岳'으로 表記하는데, 이것은 勿論 固有語地名 '물영아리'의 漢字 借記여서 意味上으로 完全 對應되는 것은 勿論 아니겠으나, 여기서 보면 '水靈岳'의 '水'는 訓讀으로서 '물'과 對應되며, '靈'은 音借 '영'이며, '岳'은 訓讀으로서 '아리'와 對應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또 現地 地方人들의 地名 '물영아리'에 대한 由來를 들어 보면 산봉우리에 물이 고여 있기로 '물영아리'라 부르게 되었다는 俗說을 參考하여 볼 때도 '물영아리'의 '아리'는 '岳'과 對應됨을 推測할 수 있다.

또 '용아리오름(龍臥伊岳)'의 '아리'도 '岳'과 對應 關係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으며, 또 '어리목'은 漢拏山 山麓地帶의 地名이니, 여기서도 '어리'는 '山'과 對應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 國語에서 '山'의 뜻을 갖는 語辭로 '아리, 아라'類의 語辭가 있는가? 現代國語에서는 勿論 찾아볼 수 없는 것이나, 過去文獻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앞에 든 古地名例에서도 '아리, 아라'類의 地名語彙가 '山'과 對應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겠다.

그런데 「倭語類解」에서는 「峰」을 'ori'라고 한 것이 있으니, 이것은 即 '山'을 뜻하는 '아리, 아라'類의 語辭가 過去 韓國語에서 自立形式으로 存在하였을 可能性을 보여 주는 唯一한 文獻資料라고 보아지며, 그後 이 '아리, 아라'의 語辭는 어떠한 契機에 廢語가 되어버렸으나 保守性과 固着性이 强한 地名에서만 現在까지 남겨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또 日本語에서 보면 古代日本語에 '山'을 뜻하는 말로 'ara'가 있었다고 한다.[16] 日本 萬葉集

16) 中島利一郎, op. cit, p. 365.

에 보면 '山下'를 'ara-si'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ara'는 '山'과 對應되는 것으로 '山'의 古語였다고 한다. 그러나 現在 日本語에서도 '山'의 뜻으로의 'ara' 語辭는 完全 消滅되었다고 한다.

다음에 隣近 同系語에서 보면

滿洲語 : alin, ala (山)
蒙古語 : aola, oola (山)

以上 諸 言語에서 보면 비록 形態上으로 若干의 差異는 있으나 이것은 다 '山'을 意味하는 語辭로서 本島의 地名語彙 '아리, 아라' 등과도 脈絡이 닿는 語辭로 보아지며, Altai 諸語에 이와 같은 語辭가 있다고 함은 決코 偶然性이 아니요, 比較言語學的으로도 매우 意義가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

그리고 여기서 '山'을 뜻하는 古代國語 '아리, 아라, 오리'의 再構도 可能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리고 이 '아리, 아라'의 地名語彙는 語源的으로 '村'의 뜻에서 起源된 것인지도 모른다. 그것은 蒙古語 等 Altai系 諸語에서 '村'의 뜻으로 '아리, 아래'類의 語辭를 찾아볼 수 있기 까닭이다.

蒙古語[air] (村)
퉁구스語[air] (村)
日本語[are] (村邑)

위 語例에서 'air · are'는 本島 地名語彙 '아리, 아라'와 關聯하여 볼 수 잇는 것인지도 모른다.

韓國語에서는 古文獻에서나 現代語에서도 '村'의 語義로서의 '아리, 아라' 語辭는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이 語彙는 元來 韓國語에는 없었던 것인지? 不然이면 過去에는 存在하였으나 過去 어느 時期에 消滅되어 버렸는지에 대해서도 分明치 않다. 다만 本島 地名語彙에 '아리, 아라'가 있으니 或이면 이것들이 그 殘宰가 아닌가 推測에 그칠 뿐이다.

日本語에서도 萬葉集에 '石村(iwa-are)' 등의 語例가 있어 古代語에서 '村'을 'are'라 하였음을 推測이 되나, '村'은 'are'라고 訓한 根據는 不確實하고 語源的으로도 立證이 되어 있지 않다.

本島 地名語彙 '아리, 아라'의 語義 및 그 語源에 대하여는 叙上에서 論述한 바와 같이, 여러 方向으로 그 뜻을 解釋하여 볼 수 있겠으나, 모두 그 根據나 傍證 資料가 微弱하에 한갓 推論에 不過한 것일뿐 斷定的으로 말할 수는 없겠으나, 國語의 再構(reconstruction)와 比較言語學的 觀點에서도 한 可能性을 示唆하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Ⅲ. 結　　論

以上 本島의 地名語彙 '기, 다리, 아리' 등에 대하여 그 分布 및 特徵과 또 通時的 觀點에서 그 語義 및 語源에 대하여 考察하여 본 바를 다음에 몇가지로 要約하여 봄으로써 結語로 삼고자 한다.

1. '~기, ~지'는 地名接尾辭로 雙形이 並存하는데, '~기'가 數的으로 優勢한 편이다. 이 '~기'는 本島地名에서는 比較的 많이 分布되어 있다고 보나, 陸地部 地名에서는 稀貴한 것으로 본다.

또 이 '~기' 地名語辭는 元來 百濟系語에서 根源된 것으로 보아지며, 古文獻에서의 地名과도 서로 對應關係에 있음을 보여 주고 있어, 이 '~기'는 通時性을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기' 語辭의 語義는 原來 自立形式으로 '城'을 뜻하는 語辭였으나 後世에 그 自立性을 傷失 漸次 處辭化하여 單純한 地名接尾辭로 남게 된 것이라고 推定된다.

2. '다리' 語辭는 大體로 地名接尾辭로 쓰이며, 形態上 여러 變形이 있다.

이 '다리' 語辭의 語根은 '달'로서 根源的으로 '山'을 뜻하는 語辭였다고 보며, 地名으로는 15世紀 文獻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또 이것은 高句麗의 地名語 '達'과도 對應되는 것으로 보아진다.

그러나 百濟地名語彙 '等也, 等良'와 濟州島의 古名稱인 '耽羅'와의 關聯性에 대해서도 注目할 만하며, 또 이 語彙는 Altai 系語에서 根源된 것으로 想定된다.

3. 地名語彙 '아리'는 '아리, 아라, 어리, 우리, 오라' 등 여러 異形態가 있다.

이 '아리'의 語源에 대해서는 '光明, 主, 美, 山, 村' 등 여러 方向으로 解釋할 수 있겠으나, 모두 分明한 根據와 傍證 資料가 微弱하여 한갓 推論에 不過하고 斷定을 내릴 수 없겠다. 다만 이 '아리' 語彙도 Altai系語에서 根源된 것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으로 본다.

4. 叙上의 地名語彙들은 自立形式으로는 모두 消滅되어 버리고 地名語彙에서만 그 자취가 남겨져 있는 것이라고 보겠다.

또 이들 地名語彙는 本島 以外 他 地域에서는 흔히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보며, 또 그 起源이 大部分 Altai語에서 비롯되었다고 想定되니, 國語의 再構와 比較言語學的 側面에서 이들 地名語彙에 대한 考究가 重要하다고 보아지니, 앞으로 여러 視角에서 많은 穿鑿이 있어야 할 것이다.

Summary

A Survery of the Words Used in the Place Names in Cheju-do

Kim Hong-shik

The place names are rather cultural and are like a fossil that suggests the natural and cultural environment of an age. It is a cultural science much devoted to the history, geography and folklore.

Especially, the relation of the place name and the language is quite close. The place name is stronger in solidity rather than the dialect. It is expected that the place name has an underlying form of a unique language of a nation without the relative intrusin from a foreign language. Thus, in the study of dialects, the writer thinks that the use of the place names is very important.

In this sense, this paper studies the foundation, background, form, meaning and etymology of the names from the linguistic point of view with an emphasis on the suffixes of the place names of Cheju-do. This study is also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helping a study on the dialects of Cheju-do.

As the result of the study of the suffixes of the place names of Cheju-do, the foundation of the place names of Cheju-do has a factor of the natural and geographical environment than the cultural one.

The suffixes of the place names of Cheju-do has an old stratum of many languages because of: strong solidity. Not only is it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be good references of the diachronicstudy of the Korean language, but also it gives a lot of suggestions to the systematic survey of the dialects of Cheju-do. In the near future, education, analysis and classificatin of the suffixes of the place names are linguistically studied.